

수석합격기
(제54회 행시 일반행정직렬 수석합격)

자신을 믿으세요



최재환

- 1966년 4월 생
- 서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년 재학
- 제54회(2010년) 행시 일반행정직렬 수석합격

I. 시작하며

합격 수기를 쓰게 된다는 것이 아직도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공부하면서 힘들 때 ‘나도 언젠가 합격 수기를 쓰게 되는 날이 올까’ 라고 생각하던 시간들이 엇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행정고시에 입문하는, 혹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 수기가 읽힌다고 생각하니 제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을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타이핑하는 손이 덜덜 떨릴 지경입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겪어 보았기 때문에 좋은 수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수험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모 학원의 설명회 자리에서 받았던 07년 일반행정 수석의 합격수기를 고시 생활 내내 종이가 너털너털해지도록 보았습니다. 수기를 보면서 공부 방법 중에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아무리 잘 하는 사람이라도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는구나...’ 라는 위안도 얻으면서 수험생활에서 가장 든든한 의지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부족한 수기이지만 이 수기를 읽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세계는 그보다 더한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수기를 읽는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셔서 자신만의 수기를 쓰시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수기를 다시 써 보고자 합니다.

II. 시험준비의 기간별 과정

1. 2008년 1월~2008년 2월 (예비 수험생)

2007년 말 쯤 처음 행정고시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학 공부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방학인 1~2월을 이용해 고등학교 수준의 미적분의 기초를 공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수험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니다. 어차피 필요한 미분은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2008년 3월~2008년 7월 (학교 재학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휴학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다니면서 경제학 원론을 수강하는 동시에 혼자서 미시경제학 기본서를 두어 번 읽고 연습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 후배들과 자주 놀게 되어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6월에 학기를 마치고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경제학 1순환을 학원에서 수강할 것인지, 또는 학교에서 미시와 거시경제학을 계절학기로 수강하고 행정법 1순환부터 순환을 따라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학원은 앞으로도 많이 다니게 될 것 같아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시의 경우는 고시적합성이 높아 도움이 되었지만 거시의 경우 고시 경제학과 많이 달라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2008년 8월~2008년 10월 (1순환 수강)

8월에 행정법 1순환을 수강하면서 본격적인 고시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에는 법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데다가 기본강의도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1순환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의고사는 책을 보고 써도 50점 만점에 10점대가 나왔습니다. 이해도 못하고 책에 줄만 치는 자신에게 화가 나고 차라리 자는 것이 낫겠다 싶어 쉬는 시간에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행정법 1순환이 끝나고 나서 행정학과 정치학 1순환을 들을 때는 점차 고시 공부에도 적응이 되고, 두 과목은 법과목과 달리 기본강의와 1순환의 차이가 크지 않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PSAT는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우선 전국모의고사를 응시해 보았습니다. 언어논리와 상황판단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자료해석이 30점대가 나왔습니다. 자료해석을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싶어 기본강의를 신청해서 듣고 9월쭝부터는 스터디 모임에 참여해서 꾸준히 PSAT를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입법고시 또한 응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더욱 PSAT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 2008년 10월~2009년 3월 (PSAT과 입시 준비)

2차 과목은 기본적으로 2순환을 따라갔습니다. 경제학은 학원강의가 2순환이 처음이었는데 미시는 학교에서 공부 잘 되어 있어 따라갈 수 있었으나 거시의 경우 학교수업과 거의 연관이 없었고 교과서도 정운찬 저나 맨큐 저를 한번도 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2순환에서 사례연습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니 1순환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기 시작해서 기본 좋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쯤부터 독서실 책상에 행정법 요점을 포스트잇으로 메모해서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2순환을 따라가면서도 꾸준히 자료해석을 시간을 할애해 공부했습니다.

2순환 종료 후부터는 PSAT 모강을 듣고 저녁 시간에는 2차 공부에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모강은 자료해석과 상황판단만 듣고 언어논리는 자신이 있어 듣지 않았습니다. 입법고시 1차에 응시했는데 매우 좋은 성적을 얻어 입시 2차를 열심히 도전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 공부는 모강과 스테디를 병행하는 동시에, 저녁 이후에는 2차 과목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시경제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입시 2차에서 참담한 성적을 받고 크게 좌절했습니다.

입시 1차에서 너무 좋은 성적을 받아 이후에 공부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행시에서 떨어질 뻔 했으나 다행히 약간의 차이로 붙을 수 있었습니다.

5. 2009년 3월~2009년 6월 (본격적 2차 준비)

계속해서 3순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3순환부터는 PSAT을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원 수업 외에 시간에 2차과목 답안 스테디를 계획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경제학과 행정법 과목 기출문제 답안을 쓰는 스테디를 하였고 그

외에 시간에는 3순환을 따라갔습니다. 입시 2차는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엉망이 되었지만 3, 4순환 기간에는 그래도 모든 과목이 어설프게나마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만큼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모든 과목을 최소 9장 정도는 답안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경제학 시험에서 모든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어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인 정치학 시험날 새벽에 갑자기 급성 장염에 걸려 배가 너무 아팠지만 '경제학을 이만큼이나 선반했는데 지금 포기하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죽을 힘을 다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6. 2009년 9월~2010년 3월 (다시 PSAT부터)

7·8월에는 여행을 다녀오는 등 실컷 놀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에는 복학을 해서 주로 고시과목과 전공과목을 들었습니다. 또한 답안스테디도 일찌감치 시작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런 것도 여태 몰랐으면서 잘도 저번 시험을 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불합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10월에 역시나 불합격을 했는데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지인들이 붙는 것을 보니 제 처지와 비교되어 생각보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내가 저 입장이 되어야지'라는 다짐을 하며 다시금 열공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차 불합격 이후 PSAT 스테디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학기를 마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오전/

오후 시간에는 PSAT를, 저녁 시간에는 2차 공부를 했습니다. PSAT은 더 이상의 학원 강의나 모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스터디를 통해 해결했고, 2차 공부는 지금처럼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서브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 경제학 서브를 만드는 데 주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행정법 과목은 관례를 많이 읽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치학 과목 또한 학원 강의에 의존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기본서를 충실히 읽고 핵심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공부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응시원서를 쓰기 직전까지 선택 과목을 바꿀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정책학에서 조사방법론으로 선택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월에 바꾸어서 과연 4월 입시 2차, 6월 행시 2차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선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지인들과 같이 조방스터디를 만들어 공부했습니다.

7. 2010년 3월~2010년 6월 (마지막 준비)

예년과 달리 입시 1차가 3월에 있어 그때까지 PSAT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3순환 경제학은 학원 실강을 들었는데 체력과 시간 소모가 아쉬워서 행정법과 행정학 3순환은 동영상으로 수강하고 답안스터디를 통해 부족한 답안을 보충했습니다. 답안 스터디에서 사람들과 많이 친해져서 거의 2차 시험 직전까지 같이 답안을 지속적으로 함께 써보며 서로 수험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4순환은 수강하지 않고 답안스터디를 통해 문제만 구해서 답안작성을 연습했습니다. 특

히 마지막 한 달은 답안도 중요하지만 시험 전날에 모든 내용을 훑어볼 수 있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단권화와 서브 보충에 집중했습니다.

4월 말에 입시 2차가 있었는데 작년에 비해 훨씬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과 정치학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잘 대응하지 못해 만족할 만큼 점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6월 합격자 명단을 보니 눈물이 났지만 다시금 새롭게 의지를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똑같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음에도 침착하게 대응한 사람은 합격하고 당황한 저는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겠다는 방법론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정치학 문제가 다소 까다로워 오래 생각하다 보니 3문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하고 시험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나름 준비한 만큼을 답안에 쓸 수 있어 만족하며 시험을 마치고 또 다시 7·8월을 실컷 놀았습니다.

III. 1차시험 공부방법

1. 점수 상승의 방법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PSAT이 관운이다, 공부한다고 점수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점수를 올리기 위해 다른 시험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처음 모의고사를 보았을 때 언어논리와 상황판단은 걱정할 정도가 아니었으나 자료해석이

30점대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료해석 점수를 올리기 위해 기본강의와 집중강의를 수강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론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차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자료해석만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시절에 만들었던 것처럼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공책에 정리해 틀린 문제는 어떤 표나 수치를 어떻게 잘못 해석해서 틀렸는지를 모두 정리해서 보았습니다. 재시 때에 만든 오답노트만 모아보니 3공 바인더로 한 번에 다 묶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오답노트화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노력조차 해보지 않고 쉽게 PSAT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노력해 본 뒤에도 안 된다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력했다면 안 될 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2. 시험응시방법

PSAT 공부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II 부분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주로 스터디모임을 활용했습니다. 모강은 초시에는 처음 치는 PSAT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감을 수강했고 재시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 혼자서 모강지를 구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약한 과목인 자료해석의 경우 거의 모든 강사의 모강지를 구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시험 1주일 전에는 절대적으로 컨디션 관리와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기출문제를 실제

시험과 같은 스케줄에 맞춰 풀어보았습니다. 이전에 이미 여러 번 기출문제를 풀어 보았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게 되고 자신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시간에 맞추어 문제를 풀면 저녁 시간이 비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오답노트의 문제를 다시 풀어보거나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험 3일 전에는 컨디션 관리를 위해 저녁 시간에는 충분히 쉬고 일찍 잠을 잤습니다.

IV. 2차 시험 공부방법

1. 과목별 집중도에 대해

과목별 집중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과목을 설정해서 한 과목을 고득점하고 나머지 과목을 선방하는 전략, 그리고 모든 과목에 골고루 최선을 다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의 전략을 채택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두 번째의 전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략과목을 설정하는 것은 당해 시험에서 어떤 불의의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점수를 얼마나 후하고 박하게 줄지에 대한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전략과목 외의 과목에서 과락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답답하겠지만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하는 전략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입시 결과를 포함한 제 성적 변화를 보시면 모든 과목이 조금씩 꾸준히 올랐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답답해도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입니다.

	09입시	09행시	10입시	10행시
경제학	24(과락)	45.66	59.66	64
행정법	51	59	63.66	61
행정학	54.33	54.66	57	64.33
정치학	51.66	59.66	59	64.66
선택과목	(정책학) 20	(정책학) 23.66	(조방) 32.66	(조방) 37.66

2. 답안작성에 관해

답안 작성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점은 답안이 논리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논리적 이유 없이 문제에 관련된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답안지에 두서 없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답안지는 어느 과목을 막론하고 한 줄 한 줄을 쓰는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A를 물어보는 경우 'A가 중요한데, A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B와 C를 먼저 논의해야 하고, A는 D와 E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는 식의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코 문제에서 묻지 않은 것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3. 과목별 공부방법

(1) 경제학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준구 저와 김영산 왕규호 저의 조합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초심자에게 이준구 저는 마치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공부가 깊어지면 수학적 설명이나 자세한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학원 강의로도 보충이 힘듭니다. 이러한 면을 가장 잘 보충

해 줄 수 있는 교재가 김왕저입니다. 김왕저는 매우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어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기 힘들어 그냥 암기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만 설명이 약간 두서가 없고 장황해 가독성이 낮고 초심자는 이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시의 경우는 대세를 따라 정운찬 저를 공부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파트별로 맨큐 저 혹은 김경수 박대근 저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맨큐저와 정운찬저를 상호 보완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기초부분과 성장론 부분의 경우 맨큐저가 좋습니다.

기본서 선택 이외에는 학원 강의 등으로 기본서로는 미흡한 수험적합성을 보완하여 공부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연습문제를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경우 충분히 행시 경제학을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브의 경우에는 단권화를 추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미시 이준구+김왕저+3순환 자료+기타 연습문제 자료, 거시 정운찬+맨큐+3순환 자료+기타 연습문제 자료를 조합하여 3공 노트에 서브를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것이 나오면 그 내용이 서브에 있는지 확인한 후,

서브에 있는 내용이면 다시 한번 암기하고 서브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해당하는 파트에 보충해서 설명을 적어 나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서브를 보완해 나갔습니다.

(2) 행정법

비법대생은 행정법에 대한 태생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므로 마음을 여유있게 먹고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두번 전체 체계를 알고 용어에 익숙해지고 나면 훨씬 세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교과서 선택은 홍정선 저와 박균성 저로 양분됩니다. 제 경우에는 조금 더 통용되는 학설이 많고 논리체계가 좋은 홍저를 선택했으나 가독성이 좋지 않아 사실 교과서를 반복해서 보기보다는 좀더 압축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박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약간 잘못된 설명이나 소수견해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 주변의 경우를 보자면 행정법은 초반에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동시에 공부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장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 행정법이 가장 자신이 있었으나 막상 점수는 행정법이 가장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식보다 오히려 답안 구성의 논리가 중요합니다. 암기할 내용은 개념/관련조문/학설/판례/결론으로 처음부터 정리해서 외우는 것이 좋고, 답

안 또한 거의 이 정도의 틀로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답안 작성시 사안의 사례와 이론을 얼마나 치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가 고득점의 핵심이 됩니다.

행정법의 경우 서브를 만들었으나 내용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과서나 이론서를 읽는 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며, 서브는 암기할 때, 답안 작성시 참고해야 할 때 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과목이지만 사실상 실무와 가장 관련이 깊은 과목으로 3차 면접 준비와도 깊게 연결되는 과목입니다. 많은 경우에 행정학 기본서를 경시하고 강사의 자료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저 또한 행정학을 처음부터 강사 자료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초시가 끝날 때까지 기본서 한 번 읽지 않아 행정학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본서를 경시하고 요약본에 의존하는 경우 답안이 수박 겉핥기식이 되어 깊이 있는 답안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충실히 읽은 후 요약본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는 <새 행정학>과 <한국 행정학>을 많이 보는 편이나 최근에는 <한국 행정학>이 대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새 행정학>을 읽어 보지 않았지만 조직론의 경우는 <새 행정학>이 좋고 나머지는 <한국 행정학>의 내용이 더 좋다고 합니다. 각론으로 인사행정학, 재무행정학 교과서도 있지만 이러한 기본서까지 읽을 시간적 여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시간 여유가 된다면 읽어보면 많은 도움

이 됩니다.

서브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과목이 행정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오히려 행정학은 서브를 만들지 않았습니니다.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서브를 만들 경우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3순환 요약서를 하나 골라 거기에 다른 교과서나 학원 자료의 내용을 직접 써넣는 방식으로 단권화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많이들 하는 신문 스크랩도 별도로 하지 않고 유용한 사례가 있으면 단권화한 책에 답안에 쓸 수 있는 정도로 추가했습니다.

모 강사의 유명한 행정학 요약서 제목과 같이 행정학은 ‘맵과 틀’이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다. 기본적인 뼈대를 가지고 있고 거의 모든 내용을 그 형식에 맞추어 설명하고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답안 작성 시에도 체계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4) 정치학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가 수험의 기본서를 표방하면서 출판이 되었지만 사실상 기본서로서의 기능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약본은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정치학은 내용의 깊이가 가장 중요하여 여러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안을 애드립으로 작성하려 하다가는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맞부딪혔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전권을 구입하는 데는 많은 비용

이 들고 시간도 부족하므로 스터디 등을 통해 파트를 나눠 간단히 요약하여 서브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외 서울대 공저 <정치학의 이해>, <현대정치과정의 동학>,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국제정세의 이해> 등을 기본적인 단행본으로 추천하며 그 외 많은 책들을 읽어볼수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원 강의는 기본서의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학원 강의가 주가 되는 경우에는 깊이 있는 답안 작성성이 힘든 감이 있습니다.

(5) 조사방법론

초시에 정책학이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조사방법론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재시에서 점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조사방법론은 과목의 체계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양이 적습니다. 점수도 후하게 주는 편이라 정말 강추하고 싶은 과목입니다. 다만 처음 어떤 과목인지 살펴볼 때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각종 통계 용어 등이 선택을 두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행시 조사방법론은 어려운 내용, 특히 통계분석 기법에 대해 깊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서는 남궁근 선생님의 책이 대세이며, 최근 김병섭 선생님의 기본서도 출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본서 외에 거의 모든 조방 선택자들이 보는 요약서인 ‘조사방법론의 ○○○’라는 책이 있는데 대부분의 조방 선택자들이 그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남궁근 선생님의 책을 가장 깔끔하게 요약한 요약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V. 기타 수험생활

1. 시간관리

고시공부는 장기간에 걸친 원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칫 하루하루의 의미가 소중하지 않게 느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 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의 가치가 퇴색되어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즉,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았으니 오늘 하루 대충 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면 하루하루가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월단위-주단위-일단위의 유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경제학은 모의고사 문제를 몇 회 또는 기본서를 1회독하는 식으로 큰 목표를 설정한 뒤에 주 단위로 범위를 세분화해서 1주일에 몇 개의 챕터를 공부할 것인지를 정하고, 다시 일 단위로 목표를 세부적으로 설정해서 하루에 한 챕터를 공부하기로 하는 식으로 하루에 할 공부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루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공부량을 모아 주 단위의 목표를 세우고, 주를 모아 월 단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공부량과 공부시간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톱워치로 공부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공부시간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10시간을 공부해도 책을 10페이지만 보게 되면 실제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량만을 측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루 전체를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자신이 만약 행정학 교과서를 하루에 50페이지 읽을 수 있다면, 행정학 공부를 하루에 4시간 하는 경우에 200페이지, 일주일에 5번 행정학 시간을 분배할 경우 1000페이지가 되어 일주일에 한 번 기본서를 읽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의 공부량과 일 주일의 공부량, 나아가 한 달의 공부량을 측정해서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을 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2.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는 오히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보다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게임이나 당구를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즐길 때는 기분이 좋지만 마치고 나면 무한한 허무함과 피로감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체력도 증진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고시생 축구모임, 농구모임도 활성화되어 있으며 지인들과 근처 탁구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자분들의 경우 주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방법이긴 하나 과식은 금물입니다^^; 그 외 저의 경우 공부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플 때는 독서실 근처 오락실에서 동전을 넣으면 몇 곡의 노래를 할 수 있는 노래방 기계를 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놀아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에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며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책 내용이 저절로 이해되진 않습니다. 책상에서 멍 때리면서 시간을 보낸 뒤 '나는 피곤해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라며 자위해 봤자 피곤하기만 하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푹 쉬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쉬었다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컨디션이 회복된 이후에 열심히 다시 공부하세요.

다만 주의할 점은 휴식을 단지 피로운 공부를 잠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때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기 싫을 때가 될 때는 아닙니다. 휴식도 공부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으로 컨디션 회복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체력 관리

체력은 장기간의 수험생활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막판에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체력이 바닥나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관악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주변에 좋은 헬스클럽도 많습니다. 제 경우에는 시험이 임박하지 않은 여름~가을의 경우 꾸준히 헬스클럽에 다녔습니다.

또한 잠을 항상 충분히 자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절대 새벽 늦게까지 무리해서 공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날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때문입니다. 잠을 줄여서 단기적으로는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체력과 공부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규칙적으로 약간 일찍 일어나서 약간 늦게 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7시간 이하로 자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VI. 마치며

듣기만 해도 겁나는 '고시'라는 험난한 길에 꿈을 위해 과감히 뛰어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하신 셈입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닦도록 보았던 합격수기에서도 마지막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믿으시고, 항상 응원해주는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같이 고생하는 스터디원들, 동료 수험생들을 믿으세요. 자신이 없어질 때마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저 스스로도 저에 대한 믿음에 의문이 들 때조차 저를 믿어준 부모님과 친구들, 선배님들, 그리고 같이 고생하며 울고 웃었던 스터디원들과 다른 수험생들에게 제 모든 영광을 돌려 그들 앞에 무한한 축복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글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이러한 감사를 전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